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군, 혁명적당군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갈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라격시위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을 맞이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 혁명투쟁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만수내안락이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으로는 조선인민군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며 주체의 선군혁명건설을 위한 억만 기쁨을 마련해주신 일제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가 뜨겁게 끓어올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앞에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각급 기관, 기업소,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덩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자들이 새겨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빛내일수 있는 주체혁명의 혁명적투쟁력을 마련해 주시고 천하무적의 최정예혁명

장군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영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절세위인들의 통상을 우리에 삼가 인사할 드려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만수내안락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에도 다함없는 경모의 불길이 흥했다.

각지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우리 당의 혁명적투쟁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25일 대성산혁명렬사묘와 신미리에국렬사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려사릉들과 려사묘에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렬사릉들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

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군 장병들, 시내근로자들이 화환진정장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

묘에 모신 화환의 너성영웅 김정은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백두산대장군을 추모하여 복상하였다.

이어서 인민무력성, 인민보안성,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내무부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각, 정권기관, 동창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덩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려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자들이 새겨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엄에 무한히 존경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투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복상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불꽃을 높이 팔고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림상을 우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방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령이 영접보고를 드려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영애와 불멸의 선군혁명영적을 가슴뜨겁게 들어켜보며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려였다.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건설적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용모의 정이 어린 존경보존심정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헌신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출자와 진공차, 배, 열차보존실들을 주의있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군사사상과 영적을 진정히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통상의 태강국, 불계의 군사강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성의 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조선인민군을 무적원승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2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내각, 정권기관, 동창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엄에 무한히 존경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통일투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려사들을 추모하여 복상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불꽃을 높이 팔고 전세대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 조국수호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다.

참가자들은 려사릉들과 려사묘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조선중앙통신】